

구제역 방역을 위한 겨울철 소독요령



겨울철에는 병원체의 야외 생존성이 길어지므로 더욱더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다. 날씨가 추워 분사된 소독수가 얼어 소독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나 녹을 때 소독효과가 나타나므로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기구 및 소독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축사 입구에 반드시 소독조를 설치해 소독수가 얼지 않도록 미지근하게 데워서 사용하고 축사통로는 주기적으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Q. 겨울철 소독기구 및 소독수(조)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소독기구는 동파의 위험이 있음으로 사용 후 남아 있는 소독수가 얼지 않도록 호스, 파이프, 노즐 부위의 소독수를 완전히 제거하고 보온 덮개를 하거나 창고 등 실내에서 보관해야 한다. 정문 소독조는 소독수가 얼지 않도록 서늘적 보온이 가능한 곳에서는 열선 등 보온장치를 해 소독조가 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만약 열선 등 보온장치를 설치하기가 어려워 정문소독조가 얼었을 경우에는 생석회를 충분히 살포하고 실내 보관된 소독약 및 소독용 분무기를 이용해 차량바퀴 등 외부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 축사입구 소독조는 소독수가 얼지 않도록 실내에 옮겨 사용하되 미지근하게 물을 데워서 소독약을 희석해 사용하고 소독조의 소독수는 유효농도 유지를 위해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보아서 수시로 교체하며 일단 희석한 소독약은 남기지 말고 전부 사용해야 한다.

Q. 겨울철 낮은 온도에서는 소독제의 효과가 감소하는지?

일반적으로 추운 겨울철의 낮은 온도에서는 소독제의 효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으므로 소독수가 얼지 않도록 이동식 소형 소독기는 실내에 보관하면서 필요시 사용하도록 하고 정문소독조 등은 열선 등 보온장치를 해 소독수가 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Q. 겨울철 소독수가 얼지 않도록 소독수에 첨가해 사용할 수 있는 동결방지제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

소독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인체독성이나 환경독성이 없는 동결방지제는 국내외적으로 개발된 것이 없으므로 소독제의 동결방지는 열선 등의 보온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Q. 구제역 긴급 방역용 소독약품의 적절한 희석배율은?

소독은 분변, 오물 등을 물로 깨끗이 청소해 건조시킨 후 유기물이 없는 청결한 환경에서 소독제를 적용하는 것이 소독의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소독제 희석배율은 제품의 설명서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각종 유기물 및 오물이 많은 도로변, 소독조, 축사내부 등에서 사용시에는 소독제의 농도를 제품사용설명서의 희석배수 범위 내에서 고농도(낮은 희석배수)로 희석해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